

한국선주협회는 해상교역의 관문인 세계 주요항만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소개하는 '세계의 항구'를 20여회에 걸쳐 연재하고자 합니다. 이번 호부터 연재되는 항만기획시리즈가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(편집자 주)

로테르담항... Netherland

“해수면보다 낮은 땅 ... 신이 버린 땅 ... 인간이 빛은 나라”

▶ 유럽대륙의 물류거점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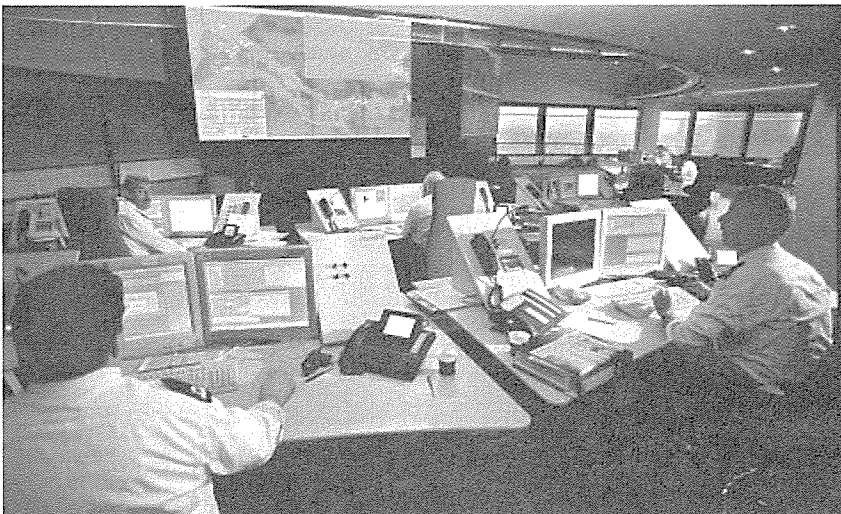
국토의 40%가 해수면보다 낮아 붙여진 국명에서 느낄 수 있듯이 네덜란드 사람들은 숙명처럼 바다와 더불어 살아왔으며, 이런 핸디캡을 극복하고 오히려 유럽대륙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학적 장점을 활용하여 오늘날 로테르담항을 연간 3억3,000만 톤, 컨테이너 700만TEU 이상을 처리하는 세계 제

일의 항만으로 발전시켜왔다.

1400년경부터 라인강 연안에 항만시설이 들어서면서 상업항으로써의 역할을 해오고 있는 로테르담항은 도심에서부터 북해에 이르기까지 라인강을 따라 약 40km에 걸쳐져 있으며 항구와 산업단지를 합한 면적이 약 10,500헥타르에, 선석 길이만도 약 80km에 이른다.

이런 항만규모에 걸맞게 연간 30,000척의 원양선박과 130,000척의 내륙운송선이 기항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수출되는 물량의 65%와 수입되는 물량의 30%를 취급하고 있다.

우리나라 남한 국토의 1/3, 인구 1,600만 정도의 작은 나라가 로테르담항을 세계 제일의 항만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지



사진은 로테르담항만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코디네이션 센터



사진은 로테르담항만의 컨테이너 터미널

않을 수 없다.

▶ 지리적 이점 및 제한 없는 수심

유럽 주요도시 및 인구의 40%가 네덜란드의 500km 이내에 위치 및 거주하고 있고, 최대 흘수 23m의 선박이 1-2시간 이내에 자유롭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개발된 항만조건으로 원유, 석탄, 곡물 및 대형 컨테이너선의 유럽내 환적 허브항이다.

라인강 및 운하를 통해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벨기에, 독일, 프랑스 및 심지어 스위스까지 대량화물을 저렴한 비용으로 운송할 수 있는 BARGE 서비스와 더불어 고속도로와 철로 등 인프라 시설이 잘 정비돼 있어 네덜란드가 유럽대륙 내륙운송시장의 약 40%를 점유하고 있다

▶ 세관 및 물류창고 시스템

철저히 수출 지향적인 세관 및 물류창고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세창고에 보관된 물품은 관세 납부

대상인 수입품으로 분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포장, 수리, 배합 등 작업을 거쳐 수출될 수 있으며 3개의 유통단지 Eemgaven(고부가 가치 상품), Botlek(화학제품 유통 및 분류업), Maasvlakte(유럽 물류센터 유치)를 운영하고 있어 100여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이 유럽물류센터를 로테르담항에 설치되어 있다.

로테르담에선 불가능한 수리가 없을 정도로 관련 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또한 연료유 보급항으로써도 아주나 미주보다 톤당 20 40불정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.(항차당 6,000톤의 연료유를 수급 받는 주간 서비스 기준 연간 900만불의 운항비. 즉, 수익개선효과 기대)

▶ 신규 개발 및 증설 계획

연간 8% 정도의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현재 ECT Delta가 위치한 Maasvlakte 옆에 1000헥타르에 달하는 Maasvlakte II를 200헥타르씩 물동량 추이 고려 5단계로 개발 예

